

# ‘지배구조 고도화’로 상법 개정 적극 대응

**주총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  
감사위원 선제 선임으로 불확실성 ↓  
삼바·녹십자·한미약품·콜마그룹 등  
전문경영인 선임·연임 ‘주요 안건’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 시행



오는 20일부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 막을 올린다. /제마나이 생성 이미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 고도화에 나섰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3% 룰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프스홀딩스, 셀트리온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다. 전통 제약사로는 유한양행, GC녹십자 등도 해당 안건을 다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이 개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한다. 최대주주 영향력은 축소하고 소수주주 권익은 보호한다는 취지다. 같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3%가 적용되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선제적으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경영인 선임 및 연임 여부에 대한 안건도 줄을 잇고 있다.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와 맞물려 이사회 견제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경영진 구성은 향후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 등의 재선임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제약 업계에서는 허은철 녹십자 대표,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 등이 재선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기업들은 이들의 연임으로 사업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한다. 기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부문 대표가 신임 대표로 내정된 상황이다. 특히 황상연 대표는 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신약개발 중심의 한미약품 경영 체제가 변화를 맞을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콜마그룹은 이번 주총을 통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 조영주 콜마홀딩스 재무그룹장이 눈에 띈다. 조영주 그룹

장은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지 각자 대표 측 인사로 알려졌다. 지난해 콜마그룹에서 창업주 장남 윤상현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각자 대표는 경영권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친화 정책도 적극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기존 보유하는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약 911만주(3월 5일 종가 기준, 1조9268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한미약품그룹도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JVM)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공시했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의 의미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대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며 “감사위원 선임과 자사주 정책, 경영진 구성 전반에서 기업별 전략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아일로 ‘슬림컷 젤리’ /동아제약

## 동아제약 ‘아일로’ 혈당·체지방·배변 한 번에 고민 해결

동아제약은 고급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에서 혈당·체지방·배변 고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3중 기능성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슬림컷 젤리’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막대형 젤리 형태로 설계됐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 ‘듀얼 슬림컷’이 정제 형태인 점과 차별화됐다. 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등에 배변 활동 원활 기능을 더해 3중 기능성으로 확장했다.

특히 아일로 ‘빨간맛 다이어트’ 기능은 강화했다. 고춧가루, 계피, 흑후추 등 엄선된 매운맛 부원료를 배합했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중 자주 느끼는 ‘씹는 욕구’를 고려해 탱글한 젤리 속에 톡톡 터지는 치아씨드를 활용해 간식을 먹는 듯한 식감과 든든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난소화성말도텍스트린, 가르시니아카보지아 추출물 등도 함유한다.

/이청하 기자

# 서정진 회장 직판 성과... ‘짐펜트라’ 美 처방 3배 급증

(셀트리온)

올해 1월 처방량, 지난해 1분기 넘어  
서 회장 등 짐펜트라 잠점 직접 알려



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2월 기준 미국 도소매 업체에 공급된 짐펜트라 출하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상 의료 기관은 실제 환자 처방 추이를 고려해 도소매 업체에 발주를 넣는 만큼, 출하량 증가는 환자 처방 증가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짐펜트라 처방 성과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주도하는 의료진 대상 맞춤형

마케팅 활동 및 환급 커버리지 확보 등 3P(전문·보행사·환자) 전략이 주요한 결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2024년 3월 짐펜트라 출시 이후 약 1년 동안 미국 전역의 자가면역질환 전문의(provider)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미국 법인 소속 영업 인력들이 현지 주요 의료진을 직접 만나 짐펜트라 임상적 가치와 치료 옵션으로서의 장점을 알려 왔다.

환자 환급이 가능한 보험사(payer) 처방집을 빠르게 확보한 점 역시 짐펜트라 판매 가속화에 크게 기여했다. 셀트

리온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를 포함한 다수의 중대형 PBM 및 보험사와 짐펜트라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하며 전체 보험 시장의 약 90% 가 넘는 커버리지(가입자 수 기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환자(Patient) 대상 온·오프라인 광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유튜브와 TV 등을 적극 활용한 미디어 광고 캠페인과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활동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은 짐펜트라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여 실제 처방 확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조아제약 ‘달샷 에너지젤’ 카톡 선물하기 입점



조아제약은 ‘달샷 에너지젤’ (사진)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공식 입점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조아제약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우리의식탁 등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 이어 이번 입점으로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제품을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게 됐다.

달샷 에너지젤은 러너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베타인과 글루타민을 각각 고품량으로 배합한 제품이다. 베타인과 글루타민은 유산소 대사 활성화, 운동 수행 능력, 장시간 운동 시 피로 관리와 근육 기능 유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조아제약은 최근 러닝과 마라톤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발맞춰 모바일 기반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으로 러닝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달샷 에너지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통 채널을 다각화해 소비자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로슈-엔비디아, AI 신약개발 구체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공장’ 출범

스위스 빅파마 로슈가 신약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로슈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엔비디아와 협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공장’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로슈는 2176개의 최신 GPU를 추가 확보, 총 3500개 이상의 GPU를 운영하게 됐다. 이는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공개된 AI 인프라 가운데 최대 규모다.

로슈는 해당 AI 공장을 미국, 유럽 등의 전역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데이터 센터 설립이 아닌 연구개발부터 제조, 진단, 디지털 헬스까지 제약 산업 전반에서 가치 사슬을 이끄는 데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고성능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로슈는 분야별 활용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에서는 엔비디아의 바이오 AI 플랫폼을 활용해 실험과 AI 모델을 연결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규모 가설을 검증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조 부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 공정을 가상으로 구현하며 최적화해 나간다. 진단 영역에서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청하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산도스, 전략적 협업 강화

‘SB36’ 전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협력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사 산도스와 바이오시밀러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및 판매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엔티비오(성분명: 베들리주담) 바이오시밀러 ‘SB36’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초기 협력 계약이다.

엔티비오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장에 결합하는 ‘알파4베타7 인테그린’ 단백질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기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감

글로벌 매출액은 약 9조원에 달한다.

본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품 개발과 생산 및 공급을, 산도스는 상업화 시점에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대한민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판권을 갖게 되며,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6을 포함한 후속 파이프라인 최대 5종에 대한 전략적 협업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사는 2023년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담) 바이오시밀러 ‘SB17’의 북미·유럽 시장 판매 파트너십 체결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게 됐다. /이청하 기자